

깊은 생각

『수능적 접근』의 훈련 편에 대한 깊은 해설입니다.

출판 초기에는 이를 넣어보려 했으나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나와 논의 끝에 본교재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교재 구매자들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려 합니다.

006

대중 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장르 영화가 ①(예시의 이정표)대표적인 사례다. ②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26090409]

①이정표(예시)

앞 부분은 영화가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예시의 이정표가 등장했다. 이때 독자는 ‘장르 영화’ 역시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②가속

②의 내용은 ‘장르 영화’도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재진술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①에서 그 정보를 성공적으로 생각해낸 독자는 이 부분에서 가속할 수 있다.

007

①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예시의 이정표)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26090409]

①순서

크라카우어의 주장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물론 이 지문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정보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은 아닌 점, 과학 기술 지문처럼 순서 포착 여부가 글의 이해를 좌우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독해해도 무방하지만, 학습의 가치는 있으니 소개하겠다.

다음과 같이 순서로 잡을 수 있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1)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2)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3)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4)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정보를 잡아보면, 예시의 이정표 활용이 더욱 간단해진다.

②예시의 이정표

예시의 이정표를 활용하면, 뒷 내용을 앞 내용에 꼬라박는 것을 떠올리며 독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앞 내용의 정보가 머릿속에서 처리된 상황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①에서 잡은 (1), (2), (3), (4)를 하나하나 찾겠다는 태도로 글을 읽어도 되기 때문이다.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1)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3)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흥미로운 지점은 (1)과 (3)에 해당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만, (2)와 (4)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때 독자는

(2)와 (4)의 내용을 끼워맞추며 읽는 것이다.

즉, 독자는 (2)를 끼워맞추면서 할 생각 '독일 영화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했겠네' 와 (4)를 끼워맞추면서 할 생각 '독일 영화를 해석해서 당시 독일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008

수빈은 ①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②(예시의 이정표)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26090409]

①보조사(도)

보조사의 용법은 하나씩 정리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주목할만한 보조사가 등장할 경우 차례로 소개하겠다.

여기서 '도'는 '공통'이라는 느낌을 부여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쪽이 기울어져 있는 저울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의 저울에 보조사(도)가 붙은 경우, 보조사(도)의 힘에 의해서 저울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얹!

이제 알아두자. 보조사(도)는 어떤 상황에서 서로 다른 항의 무게를 같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러하다.

②예시의 이정표

예시의 이정표를 활용하여 뒷 부분을 독해하면, 앞 부분에서 제시했던 정보 중 ‘허구적 이야기’가 뒷 부분의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럼 굳이 따져보자면, 뒷 부분의 ‘유사성’이 무엇일까?

생각건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온 것’이다.

009

①최소가청강도는 주파수 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②(예시의 이정표) 예를 들어, 주파수[1,000 Hz부터 10,000 Hz 사이]에서는 최소가청강도[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주파수[100 Hz 이하의 저음에서는] 최소가청강도[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26091417]

①이항 관계 제시

이는 최소가청강도와 주파수 크기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주파수가 최소가청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B별로 A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B값이 달라짐에 따라 A값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를 $B \Rightarrow A$ 로 구조화할 수 있다.

(참고로 \Rightarrow 기호에 대한 설명은 002 문장의 해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예시의 이정표

①에서 [주파수 \Rightarrow 최소가청강도]라는 이항 관계를 잡은 상황에서 예시의 이정표를 본다면, 독자는 각 항을 찾겠다는 목적의식으로 뒷 부분을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뒷 부분을 보며 ‘최소가청강도’와 ‘주파수’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읽었다면, [1,000 Hz부터 10,000 Hz 사이]와 [100 Hz 이하의 저음에서는]이 주파수에 대한 정보임을,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는 최소가청강도에 대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010

범주화는 우리가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로, [개별 대상]을 동일한 속성끼리 묶어 파악하는 사고방식이다. (예시의 이정표) 예를 들면, 개별 대상[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속성[소리를 내는 방법]이 동일한 것끼리 묶어 현악기·관악기·타악기로 이해하는 것이다.

[26094345]

①설명구

이전에 002의 해설에서 설명구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요약해보자면, ‘A는 B이다’와 같이 특정한 대상/개념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듯 하면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끊어서 읽자’ 라는 행동 강령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좋다.

흥미로운 점은 독서 지문에서 가끔 이런 설명구가 여러 번 서술된다는 점이다. 즉, 필자가 이미 A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준 구절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A에 대해 설명해주는 형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때 서로 다른 설명을 동시에 붙여 놓을 때도 있고 멀리 떨어진 채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010에서 등장하는 설명 방식이 ‘동시에 붙여 놓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을 배우들이 연기하는 상황을 다양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배우들은 같지만, 그들을 각자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는 카메라에는 다른 상이 잡힌다.

여기서의 배우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A)로 이해하면 된다.

그럼 문장으로 돌아가서 보자.

범주화는 ^X[우리가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로, ^Y[개별 대상을 동일한 속성끼리 묶어 파악하는 사고방식]이다.

‘범주화’라는 배우를 X로 볼 수 있고, Y로도 볼 수 있다.

또 X와 Y 모두 ‘범주화’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인데, 이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것이라 이해하자.

(여담이지만 Y는 X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해줬다. 두 설명을 잘 비교해보자.)

②예시의 이정표

뒷 부분을 앞 부분에 꼬라박으며 읽어보면, 뒷 부분의 ‘음악을 연주하는데 쓰는 기구’가 앞 부분의 ‘개별 대상’으로, 뒷 부분의 ‘소리를 내는 방법’을 앞 부분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